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7. 11. 3.(금)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 과장 변재영, 서기관 김규섭 • ☎ (044)200-5911	
보도일시		2017년 11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중일 3국, 스마트 항만 구축 위해 한데 모여

- 11.6~8 중국 청도서 제18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3일 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에 참석하여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 한중일 삼국의 항만분야 담당 국장급이 한 데 모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성과 논의, 2000년 이후 매년 삼국이 번갈아 개최

올해 회의는 세계 8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동화 터미널을 갖춘 중국 청도에서 열린다. 우선 1, 2일차에는 김창균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을 비롯한 3국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지능형(스마트) 항만’ 추진현황 및 한·중·일 공동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논의하며, 3일차에는 학술 행사(항만심포지엄)가 개최된다.

* 지능형(스마트)항만 : 관련 정보수집·전달·분석·실행 등을 자동·자율적으로 시행하여 공간, 시간 등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항만

이번 회의의 주제인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자동화된 설비를 갖춘 항만으로, 각국은 항만 관련 정보 연결성 강화 및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요 항만 터미널에 야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스마트 항만구축 전략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 컨테이너 선박에서 화물을 내린 후 트랙터로 이송하여 적재하는 장소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서의 하역자동화 시스템 구축 현황과, 선박육상전력공급설비(AMP)·배출가스제한구역(ECA) 설정 등 항만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항만 동향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능력 연구, 3국 항만 관련 법률 비교, 항만환경 관리방안, 크루즈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방안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연구 참여

회의 3일차에는 3국의 항만분야 전문가 6명이 참석하는 ‘동북아 항만 심포지엄’이 열리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형(스마트) 항만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재영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항만 구축’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정과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내 세부과제인 ‘항만 서비스 고도화 및 국제물류시장 개척화’

□ 항만국장회의 개요

- (목적) 한중일 항만 당국 대표 정례회의를 통한 항만 발전방향 모색
 - 공동 관심사와 항만정책 추진 현황, 방향 및 주요 이슈 등 교환
 - 3국의 국책연구기관의 항만관련 공동 추진연구과제 결과 보고

- '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로 출발, '99년까지 한·일 국장회의 5회 개최
 - * '99년 회의에서 중국을 참여시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기로 결정
- '00~'15 : 3국이 순차적으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17회 개최
 - * 제1회 회의('00)에서 3국이 동 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기로 합의

<연도별 동북아항만국장회의 개최현황>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개최지	동경	서울 / 속초	북경 / 상해	동경 / 니가타	서울 / 부산	북경 / 연태	동경 / 미야자키	서울 / 광양	북경 / 대련	동경 / 와카야마	제주	항저우	옌타루	울산	난징	고베	인천

□ 제18회 회의 개요

- 기간 : 2016. 11. 6.(월) ~ 11. 8.(수)
- 장소 : 중국 청도 / ○ 주제 : '스마트 항만'
- 참석자 : 부산항건설사무소장(대표), 항만지역발전과장 등 5명
- 행사 일정
 - 1일차 : 과장급 회의 / 2일차 : 항만국장회의 / 3일차 : 심포지엄 등

□ 주요 활동

- 스마트 항만과 관련된 삼국의 추진 정책 공유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항만당국의 스마트 항만구축 추진현황발표
 - 우리나라는 부산항 등 주요항만에 대한 하역자동화 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 R&D 추진, AMP, ECA 등 친환경정책 등 소개 예정
- 한중일 공동연구과제 추진현황 점검
 - 터미널 하역능력 산정, 항만법률 비교 연구, 항만환경관리방안, 항만에 관광객 유치방안 등 4개 공동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논의
 - * 삼국의 국책연구기관(한국은 KMI, KIOST)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국장회의에서 성과 발표